



# 눈을 감아도 세상은 눈을 감지 않는다

김민철

어제는 나를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은 나를 보고 있으며, 내일 만날 시간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순간의 점들은 일상이 되어 내가 가진 전부가 된다. 수 없이 수 놓인 발자국 위에는 영혼의 모습이 드러난다. 켜켜이 쌓인 수련의 시간, 성격, 역경 속에서 부러지는지 유연하게 굽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등 그 모든것이 드러난다. 그야말로 속일 수 없는 영혼의 발자국이다.

## 취업뽀개기

긴 여름 저녁이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던 그즈음에, 나는 취업에 성공했다. 얼마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고, 우리 신입사원들은 재무, 회계, 총무, 청렴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교육받았다. 그리고 대망의 출근 첫날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고쳐 매며 긴장과 설렘을 가득 안고 출근했다. 책상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많이 직원들이 박수와 함께 웃으며 맞이해주었다. 행복했다.

## 아이고 사장님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협력업체 관리였다. 상당히 많은 협력업체가 우리 사무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업무협의를 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 꼼꼼하게 메모했다. 입사 후 약 3주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업무협회가 끝난 후 자리에 앉아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A 협력업체 사장님께서 나를 불렀다.

"무대리님, 하하. 대리님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참 뿌듯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하하"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게 뭐냐는 질문에 그냥 받으시면 된다며 내 주머니에 억지로 구겨 넣고는 돌아가셨다. 심리학들에 따르면 인간은 당황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고 그대로 멈춘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freezing(언다)'이라고 표현하는데 잠시 영혼이 가출한 거 같은 얼떨떨한 상황을 말한다. 당시 내 기분은 freezing 그 자체였다.

(이놈의 사장님이 어렵게 들어온 회사 잘리게 만들려고 하나, 아이고 사장님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운 대로 상급자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봉 과장은 봉을 잡았나!

내 상급자는 봉 과장이다. 상당히 거친 외모의 소유자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범죄도시의 마동석하고 비슷했다. 봉 과장에게 상품권을 건네주며 A 업체 사장님이 갑자기 불려서 나갔는데 상품권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 미처 돌려드리지 못했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봉 과장은 나를 힐끗 보더니 알았다며 자신이 처리한다는 말과 함께 상품권을 본인 책상 서랍에 넣었다. 다 해결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오후는 업무뿐 아니라 민원전화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며칠 후, 출근하자마자 봉 과장이 차 한잔하자며 나를 불렀다. 평소 업무얘기 말고는 말을 섞지 않던 봉 과장이 차 한잔하자고 하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했다. 일이 힘드냐는 말부터 일상적이고 소소한 얘기까지 많은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 우락부락한 봉 과장이 나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 또다시 freezing

점심은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나를 얼마나 예쁘게 봤으면 이런 곳을 데리고 오느냐고 생각하니 흐뭇했다. 그런데 또다시 freezing이 왔다. 예약된 자리에 들어서니 나에게 상품권을 주었던 A 업체 사장님이 나와 있었다. 굳이 내 팔에 팔짱을 끼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아이고 우리 무대리님께서 놀라셨었죠. 제가 드린 건 조금 잘 봐달라는 성의 표시였지 부담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이어 봉 과장이 말했다.

"교육받은 대로 한 것은 아주 잘했어. 그런데 이 정도는 성의라 생각하고 받아도 되는 거야. 그래야 일도 착착 잘 돌아가지." 라고 말하곤 백세주 두 병을 시키며 화제를 전환했다.

류시화 시인에 따르면 삶을 꽃피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꽃을 피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이 꽃 피어나도록 돕는 일이다. 반대로 삶을 지게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길과 누군가를 파멸에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일이다. 봉 과장의 모습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믿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여러 대화를 나눴다. 가족 얘기부터 여러 번 필드에 나간 골프 얘기 그리고 연초에 단가계약 한 건의 설계변경을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불과 입사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어리둥절했다. 점심 이후 봉 과장은 나를 같은 편으로 생각했는지 밝게 웃으면서 업무에 대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 번의 저녁을 제안했다. 그러나 약속을 핑계로 계속 거절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불편함을 느꼈는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다. 인사도 받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데 보였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잘못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편했다.

### 팀장님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도저히 회사에 다닐 수 없었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이런 식으로 힘들게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팀장님께 문자로 연락을 드렸다.

"팀장님,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소 팀장님은 업무는 깐깐하게, 여가는 팔팔하게라는 신념으로 인생은 재밌어야 맛있다고 말씀하셨다. 팀장님도 최근 나의 행동이 이상했음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나를 불렀다.

평가와 판단을 배제한 조용하고 따듯한 말에는 분명 강력한 힘이 있다. 캐묻는 것이 아닌 주도권을 넘겨주는 화법. 교차하는 시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닿아있는 묵직한 경청은 속마음을 얘기하기 쉽게 해준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 팀장님께서 크게 한숨을 쉬시곤 "또 시작이네"라고 하셨다.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며 고생 많았을 건데 신경 못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곤, 무 대리에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들어가자며 어깨를 두 번 툭툭 치는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따뜻했다.

이후의 매 순간은 살얼음판이었다. 제대로 조치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후 팀장님에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을 수 없었다. 봉 과장과 팀장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날이 길어졌다. 이러다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얼마 후,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굳게 다문 입과 정제된 말투와 단답식으로 끊어서 말하는 말투까지 감사팀은 검찰과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 지점의 2층 회의장을 정리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설치했다.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 때문에 온 것 같아 겁부터 났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 채셨는지 팀장님이 조용히 불렀다.

"혹시나 감사팀에서 연락오면 솔직하게 말하는거야. 겁이 나겠지만 무 대리는 팀장인 내가 지켜줄거야. 팀장이 해야 할

일이 팀원들 지키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얼마 후, 감사팀에 불러 가서 겪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말했다.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무섭거나 걱정되진 않았다. 오히려 감사팀이 신입사원인 나를 걱정해 주는 모습에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부패의 뿌리를 뽑는 일은 타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납득할 수 있는 종결을 하는 것이다.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종결의 끝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걸음이 평생의 첫걸음이 되어 종국에는 마무리될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 그로부터 얼마 후

봉 과장이 떠났다. 아니 잘렸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회사의 특성상 하나의 협력업체가 여러 지점과 업무를 하게 된다. 감사 결과 봉 과장과 A 업체의 관계는 생각보다 깊었다. 상품권과 식사를 주고받는 사이를 넘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봉 과장이 우리 지점으로 오기 전부터 A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당 적게는 수백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고 곧 갚겠다는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 설계변경 보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기가 찼다. 이 정도 금액은 성의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그의 말이 떠올라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은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그와 동등한 대가를 필요로 한다. 봉 과장이 연봉보다 훨씬 낮은 몇천만 원과 맞바꾼 것은 양심과 가족의 생계였다.

봉 과장은 그렇게 회사에서 지워졌다.

지점의 창고를 정리하던 중 20여 년 전 신입사원들의 연수 사진에 익숙한 인물이 있었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큰 덩치 때문인지 한눈에 봉 과장임을 알 수 있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환하게 웃고 봉과장의 미소였다. 그의 미소가 싱그러웠다.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채,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 모르는 채 해맑게 웃고 있다. 사진은 과거와 현재를 무겁게 압축해서 보여준다. 웃음이 나면서도 담담하고 멍멍한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

그의 하늘도 푸르렀을 것이다. 말에도 색이 있듯 그의 하늘에도 색이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색했을 것이고 세 번째부터는 당당하지 않았을까 싶다. 언젠가부터는 그가 먼저 원했을 것이고 업체가 올 때마다 본인의 이름이 불리길 바랐을 것이다. 그가 업체를 대할 때의 보여준 어두운 표정 하나가 뇌리에 박혀있다. 업체의 말은 그를 더 작게 만들었고 업체의 말 한마디는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업체에 머리를 조아리며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봉 과장은 왜 처음부터 손바닥을 찢을까, 주먹을 움켜쥐며 돌아섰어야 하는데 왜 손바닥을 찢을까. 그는 처음부터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한 것일까? 회사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손바닥을 찢 순간 그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자아를 잃은 노예가 되어버렸다.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올려주는 행위이다. 배경음악에 불과했던 숫자가 주가지수가 되고, 외국인과의 대화를 알아들을수도 있으며, 단순한 가로수가 개화시기를 맞이한 배롱나무가 된다. 조선경국 전에 따르면 어진 자질은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그른 자질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지러운 부분은 반면교사를 삼아 발전해 나가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봉 과장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현혹하는 손바닥보다 묵직하게 쥐고 있는 주먹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봉 과장의 행동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봉 과장과 근무 경험이 나를 더욱 성장시키리라는 것이다.

여행이 어떤 환상이 마음에 찾아올지 모른 채 마시게 되는 포도주라면, 청렴은 어떤 이야기가 쓰일지 모른 채 마시게 되는 소맥 한잔일 것이다. 한 두잔의 기분 좋음이 넘치면 자아를 주체하지 못하게 된다. 청렴에도 색이 있다. 그것은 무채색이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주변을 적셔놓은 안개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뚜렷이 존재하는 먼 곳에 있지 않은 그것이 청렴일 것이다.

신입사원이었던 무 대리는 이 한마디를 가슴속에 새겼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보이지만 세상은 눈감은 우리를 보고 있다.”